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선교의 본질에 관한 조직신학적 고찰

(A Systematic Study on the Nature of Mission as the Work of the Triune God)

이신열 (백석대학교)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dogmatics, mission is the work of the triune God in its whole. In this essay it is proposed that we should understand the nature of mission in threefold way as the work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First, the predestination of God the Father is the foundation of mission. Without His grace of election, it is impossible for us to discuss who shall be saved. His work of predestination provides not only the nature of mission as God's work but also confidence that it will be accomplished despite all difficulties and hardships surrounding missionary works. Second, the redemption of God the Son is the beginning of mission. His mission has been often regarded as being directed towards the Jews alone. But it is shown that His redemptive work was done for all the people who was elected by God. Third, the indwelling work of the Holy Spirit provides impetus for continuation of mission. The Holy Spirit not only makes us focus our attention to Jesus and see Him, but also challenges us to see spiritual needs of the unevangelized. As a result we are given earnest desire to be witnesses for Jesus Christ. Due to indwelling ministry of the Holy Spirit, we are privileged to continue the mission which Jesus had begun.

1. 들어가는 말

인디아에서 선교사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였던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 (Lesslie Newbigin)은 선교신학을 전개하고 발전시킨 현대 선교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다.¹⁾ 그는 오늘의 선교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정의 (God's justice)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지는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교회와 선교가 양분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선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²⁾ 뉴비긴이 지닌 선교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비전과 성찰은 선교신학 (the theology of mission)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이해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의 최고 권위 (supreme authority)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선교신학을 전개해 나간다.³⁾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하여 삼위 하나님 (Triune God)의 선교로 선교를 정의한 후에 그는 계속해서 이를 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세 가지 행위로 설명하였다. 첫째, 성부 (God the Father)의 왕국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로서 선교, 둘째, 성자 (God the Son)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행위로서의 선교, 셋째, 성령 (God the Spirit)의 증거를 지켜나가는 소망의 행위로

1) 그의 선교 전반에 걸친 평가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Thomas F. Foust et al (eds.), *A Scandalous Prophet: The Way of Mission after Newbigin* (Grand Rapids: Eerdmans, 2002).

2) Lesslie Newbigin, *The Open Secret: An Introduction to the Theology of Mission* (Grand Rapids: Eerdmans, 1995).

3) Newbigin, *The Open Secret*, 12-18.



서의 선교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⁴⁾ 뉴비긴의 선교에 대한 정의가 고전 13장에 언급되어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와 일치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의 선교신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절대적 우월성과 주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Christocentric) 선교이해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⁵⁾라는 개념과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를 선교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메시아적 선교론 (Messianic missiology)⁶⁾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의 선교에 대한 이러한 비전과 이해를 염두에 두면서 개혁신학에 있어서 선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추구하려 한다. 개혁신학이 철저히 신중심적이며 (theocentric) 그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학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선교를 구체적으로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⁷⁾

2. 선교의 근거 (foundation)로서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predestination)

선교의 신학적 이해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선교의 근거 (foundation)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신자들이 선교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사실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예수님의 대위임령 (마 28:18-20)일 것이다.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는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도록 부탁받았기 때문이다. 성자가 성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이 성자의 모든 사역을 이해함에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성부와 성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기때문에 성부의 뜻과 계획이 곧 성자의 뜻과 계획임을 뜻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는 성부에 대한 성자의 절대적 순종이라는 외적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으로 표현되어진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이었다. 따라서 선교의 근거는 사실상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외한 채 논의되어질 수 없다.⁹⁾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특히 인류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신학적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

4) Newbigin, *The Open Secret*, 30-65. 선교의 본질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접근을 취하는 또 다른 선교학자로는 허버트 케인 (J. Herbert Kane)이 있다. 그의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을 참고할 것.

5)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George R. Vicedom, *The Mission of God: An Introduction to a Theology of Mission*, tr. Gilbert A. Theile and Dennis Hilgendorf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5).

6) Wilbert R. Shenk, "The Relevance of a Messianic Missiology for Mission Today," in *The Transfiguration of Mission*, ed. Wilbert R. Shenk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93), 17-36.

7)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선교를 조직신학의 영역 내에서 이해하려는 학자도 있었다. H. Diem, "Der Ort der Mission in der systematischen Theologie," in *Evangelische Mission Magazin* 111 (1967): 29-42.

8) 개신교 선교학의 주춧돌을 놓았던 Gustav Warneck (1834-1910)은 대위임령을 선교의 초자연적 근거 (supernatural foundation)중의 하나로 보았다. cf.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4-5.

9) J. H. 바빙크,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81f.

10) 예정에 관한 성경적 증거를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다룬 글로는 B. B. Warfield, "Predestination" in B. B. Warfield, *Biblical Doctrine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8), 3-67; Loraine 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Phi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예정론의 역사에 등장하였던 주된 논쟁과 관련된 두 용어는 선택 (election)과 유기 (reprobation)인데 이는 보편주의 (universalism)와 특수주의 (particularism)의 논쟁이기도 하였다. 구원받기로 이미 선택된 자들의 수는 특정하고 제한되어 있다는 어거스틴의 특수주의적 견해는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혁신학의 입장은 분명하였는데 이는 선택이 신적 은혜의 결론이며 복음의 총합이라는 관점이었다.¹¹⁾ 즉 선택은 신적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택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임의적인 개념이 아니며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결정인 선택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 드러나게 됨을 뜻한다. 이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은 <기독교 강요>의 저자 칼빈이다. 그는 선택의 교리를 논의함에 있어서 탁상공론에 빠져 들어갈 위험성을 직시하고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파악하였다.¹²⁾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선교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practical consequence)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선교의 근거가 사라지게 됨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미리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신다. 만약 예정의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기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교는 한낱 인간의 노력과 성취에 의하여 정의를 따름이다. 즉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불경스러운 잘못을 범하게 되는 셈이다.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선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 (*opera Dei*)이 아님이 분명해진다. 선교의 실질적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선택과 유기에 더 이상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¹³⁾ 영원 전에 미리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열매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선포와 명령의 역사를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예정의 교리는 결코 추측과 공론의 대상이 아님이 드러나게 된다.¹⁴⁾ 이 교리는 이를 듣고 접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교리이며 이에 대한 그들의 자유로운 반응이 영생 (eternal life)과 영멸 (eternal death)을 결정짓게 된다. 즉 이 교리는 복음을 진정한 의미

1932) 등이 있다.

11) Adolf Schlatter, *Das christliche Dogma* (Stuttgart: Calwer, 1923), 518.

12) J. Calvin, *Institutes*, III, xxiv, 5.

13) 칼 바르트 (Karl Barth)는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부인하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간과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비판하였다 (*Church Dogmatics*, II, 2, 111). 바르트가 주장하는 선택교리의 핵심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의 주체 (the electing God)인 동시에 선택의 대상 (the elected man)으로 이해한데 놓여있다 (*Church Dogmatics*, II, 2, 103-116). 이는 바르트가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 일원론적 특징이 잘 반영된 변증법적 신학 (dialectical theology)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즉 칼빈의 이중예정론에 묘사되어진 하나님을 '숨어있고 격리된 신' (Deus nudus absconditus)으로 이해하였던 바르트에게 예정하시는 하나님은 '성육신적 신'(Deus incarnatus)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바르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선택의 주체일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선택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바르트 사상의 독특성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신 개념의 논리적 결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의 대상임과 동시에 유기에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특이한 이중예정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Church Dogmatics*, II, 2, 347, 164, 161f). 바르트의 이러한 예정론은 사실상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단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회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Church Dogmatics*, II, 2, 477). cf. Weber, *Foundations of Dogmatics*, Volume 2, 453-454. 따라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논쟁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은혜의 승리'라는 관점에 의하여 그 논쟁의 쟁점이 사라지게 되고 만 셈이다. cf. G. C. Berkouwer,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tr. Harry R. Boer (Grand Rapids: Eerdmans, 1956), 89f.

14) Otto Weber, *Foundations of Dogmatics*, Volume 2, tr. Darrell L. Guder (Grand Rapids: Eerdmans, 1983), 438.



에서 ‘복된 소식’으로 만드는 확실성을 보장하고 제공한다.¹⁵⁾ 따라서 예정의 교리는 선교의 완결 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제시하는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선교가 지닌 신학적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¹⁶⁾ 하나님의 오묘하신 작정과 계획이 완전하게 구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도래가 참된 선교의 궁극적 비전임을 뜻한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확립되고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¹⁷⁾

선교의 근거에 대한 예정론적 이해는 선교의 과업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여 준다. 이는 선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줄 뿐 아니라 선교의 당위성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서 힘차게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소명(calling)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정함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신적 사역의 동역자 (co-workers of divine ministry) 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선교는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이라는 용어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찾아서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의 자발적이며 성령에 이끌린 반응을 촉구함이 선교의 본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¹⁸⁾ 선교가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상실한다면 선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계획을 완성하고 그에 따르는 성취감을 높이려는 하나의 엔터프라이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일이며 선교의 전략수립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의 전능하심을 따라 그대로 실현될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 핵심이 놓여 있다. 이는 오늘날 선교의 현장에서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끌어준다. 이런 부정적 현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명령하셨고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3. 선교의 출발점 (starting point)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구속 (redemption)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교의 근거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놓여있다면 “선교의 실질적 출발점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선교가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실행되어야 하는가?”하는 질문들이 제기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뜻과 계획을 인류 역사 속에서 현실화하는데 집중되어졌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선교활동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선교활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the Savior and the Lord) 로 믿고 따르게 하는 일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교의 신학적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구약에는 이러한 선교사상과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지어야만 하는가? 구약은 단지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특수한 종교적 역사에 불과한가? 구약에 나타난 창조라는 신적 행위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개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즉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또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15) 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331.

16) 뉴비긴 (Newbigin)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채 소수에게만 보여지는 비밀에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소수에게만 허락된 사실을 예정의 교리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Newbigin, *The Open Secret*, 35.

17) Warfield, *Biblical Doctrines*, 22.

18) cf) J. van Genderen & W. H.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Kok, 1993), 228.



사랑을 베푸셨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공의를 행하며 자신에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요구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들에 대하여 우상숭배와 타락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이들을 자신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따라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특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교의 보편적 성격에서 비롯된 당위성과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⁹⁾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선교의 기초로서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온 세상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진리를 증명하고 있다.

구약의 선지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종말론적 구도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되었을 때를 예견하면서 모든 민족들과 열방들이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준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메시아 (the Messiah)에 의하여 시작되고 완성될 것임을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종 (servant)은 곧 이스라엘 (사 41:8)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명은 바로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증인의 사명이었고(사 43:10, 12)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사명이었다.²⁰⁾ 그런데 이사야 42장 이후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집합적 개체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사 43:10; 44:1; 49:3) 뿐 아니라 한 개인 (individual)을 지칭하는 경우 (사 42:1f; 42:19; 44:26; 48:16; 49:4-6)로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종은 ‘고난받는 종’ (사 52:13-15)으로 묘사되어졌는데 이 종은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 53).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즉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 (창 12:3)은 이스라엘이 종의 사명을 충실히 담당할 때 실현되어질 약속이었다 (사 51: 1-2).²¹⁾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그 결과 종으로서 받은 사명을 완수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었다 (사 53:6; 마 1:21). 그는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이들을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게 될 참된 왕이었으며 (눅 1:33) 지극히 높으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구속 사역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었는가? 혹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성격 (universal character)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어질 수 있다. 독일의 교리사 (history of doctrine) 연구가이었던 아돌프 하르낙 (Adolf von Harnack)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적으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특수주의적 (particularistic)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였다.²²⁾ 그는 예수님의 전도활동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결코 이방인들을 위해 의도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마 15:24)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로 예언된 것에 기초하여 (사 45:20-22; 49:26; 52:10) 예수님의 구속사역 또한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예언되어졌다(사 53:12). 그는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 그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었다 (눅 2:31-2). 예수님 탄생 시에 동방박사들이 자진하여 그를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 (마 2:1-12)은 구약성경에 그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실 뿐 아니라

19) 바빙크, 『선교학 개론』, 32-38; Johannes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8), 90-92.

20)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72), 81.

21) Young, *The Book of Isaiah*, 308.

22) A. von Harnack, *Die Mission und Ausbreitung des Christentums in den ersten drei Jahrhunderten* (Leipzig: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24), 39.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예언의 성취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과 빛 (마 5:13-14)이라고 칭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주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잘 드러낸다.²³⁾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마 8:11)고 말씀하신 것 또한 그의 구원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 여러 다양한 민족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자신이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보냄 받았기에 자신의 복음전과 행위를 이스라엘로 국한시키는 듯한 복음서의 본문들 (요 4:22; 마 15:24; 마 10:5)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J. H. Bavinck는 이러한 본문들이 구원이 모든 민족들과 열방에게 주어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지연되어야만 하였던 신비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자신과 그의 제자들의 전도행위를 이스라엘에만 국한시키신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즉 자신의 대속 사역이 완결된 후에는 그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필요성, 특히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선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언급하셨다 (눅 24:47; 마 28:16-20; 행 1:8).

여기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하신 구속 사역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과 교회에게 선교의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을 주심으로서 자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자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무력이나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속적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시고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 통치이다 (눅 22:25-27).²⁵⁾ 이러한 섬기는 통치는 그의 대속의 죽음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막 10:45). 그리스도는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다.²⁶⁾ 그는 대속 사역의 완성의 증거로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부활하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스스로 입증하셨다 (롬 1:3).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그의 왕적 통치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대속 사역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섬기는 사역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일 뿐 아니라 모든 선교의 출발점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졌으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이를 미래적임과 동시에 현재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그리스도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함 (막 1:15; 마 4:17)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임박성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현실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주장이 결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거나 이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부를 향한 모든 사역은 각 위 하나님의 동역 (co-operation)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성부는 그 성격상 근원이 되시는 위격에 해당된다. 따라서 성부 영원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교는 이 예정의 범위 내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하여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선교의 지속과 완성 (continuation and completion)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 (indwelling)의 사

23) 바빙크, 『선교학개론』, 53.

24) 상계서, 53-56.

25) Hermann Dembowski, *Grundfragen der Christologie* (Munchen: Chr. Kaiser Verlag, 1971), 192.

26) Wilhelm Brandt, *Dienst und Dienen im Neuen Testament* (Gutersloh; Bertelsmann, 1931), 71.

27) Donald Senior & Carroll Stuhlmueller, *The Biblical Foundations for Mission* (Maryknoll, NY: 1983), 144; Bosch, *Transforming Mission*, 32.



역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에 근거하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의하여 시작된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완성에 이르게 된다. 성자 하나님은 선교를 지상에서 시작하셨고 자신의 부활 후에 선교의 대위명령 (마 28: 18-20)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지상과업을 계속하고 이를 완수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는 그들 각자가 지닌 인간적인 측면으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을 홀로 버려 두신 채 승천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는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어 선교 사역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시되 그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요 20:23).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날 밤에 그가 장차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요 14:16; 15:26; 16:7). ‘보혜사’ (paraclete)로 명명되어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먼저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행 1:8)은 그의 승천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던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행 2).

여기서 선교의 본질과 관련하여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누구에 의하여,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보내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요한복음 14-16장은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요청에 의하여 (15:26; 16:7), 즉 그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어 졌음을 (14:26) 강조한다.²⁸⁾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부로부터 성자에 의하여 보내어 졌다고 묘사되어 있다 (15:26).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재 (physical absence)를 대신함을 뜻한다 (14:7). 이런 맥락에서 성령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보혜사이시다. 즉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로자 (Comforter), 상담자 (Counselor), 후원자 (Supporter), 조언자 (Adviser), 대변자 (Advocate), 동맹자 (Ally), 그리고 친구같은 연장자 (Senior Friend)이셨던 것과 똑 같이 성령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존재로 나타나신다.²⁹⁾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신다는 조건하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수 있었다 (16:7).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보내어 지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는가?

성령의 보내심과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증거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5:26).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전파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선교사역이 성령에 의하여 계속되어져 나감을 뜻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³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증거와 더불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목격한 제자들도 그의 이름을 증거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15:27).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의 결과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4:16-7). 성령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

28)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64.

29)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61.

30) John V. Taylor, *The Go Between God: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Mission* (London: SCM Press, 1972), 111.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되어진 능력이 개인으로서의 신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논증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Frederick D.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Grand Rapids: Eerdmans, 1970), 159-62; Samuel Y. Lee, *Grace and Power i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Theology* (Apeldoorn: TUA, 2002), 196-7.



을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하여 살리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전파를 통하여 다른 죽어있는 영혼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도록 이끈다. 해리 부어 (Harry R. Boer)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설교, 즉 크리스찬들의 증거라는 방편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다고 이해하였다.³¹⁾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는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속성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선교의 지속성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보내지셨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의 임재는 더 이상 일회적이거나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그의 임재는 내주하시는 임재 (indwelling presence)이어야 한다. 또한 죄의 심각성에 짓눌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진리들을 망각하려는 경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단히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필요로 한다 (15:26). 진리의 참된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닌 모든 인간적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함이다. 선교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되 이를 영원토록 지속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한 복음의 전파가 선교의 지속성 (continuation)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와 연합시키는 사역임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 (John Calvin)은 이를 자신의 <기독교 강요> 제 3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숨겨진 사역’ (*opera arcana*)이라고 불렀다.³²⁾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의 열매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는가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칼빈은 이를 숨겨진 사역이라고 이해하였던 것이다.³³⁾ 이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즉 성령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잘 지적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향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실 때 크리스찬이 어떤 내적인 과정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선교에 임하게 되는가를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고찰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 사역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을 제공함에 있다. 즉 그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제공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을 직면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킨다. 이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해당된다. 그의 내주 사역의 결과로 (롬 8:11)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고전 12:3)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롬 8:14-5). 성령 하나님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먼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³⁴⁾ 이러한 그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교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그는 성부와 성자 사이를 묶어주시는 사랑이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지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을 더

31) Harry R. Boer, *Pentecost and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75), 110.

32) Calvin, *Institutes*, III, i, 1.

33) cf) Jose Comblin, *The Holy Spirit and Liberation* (Maryknoll, NY: Orbis, 1989), 161.

34) Taylor, *The Go Between God*, 61.



욱 분명히 깨달아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을 감추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끄신다. 패커 (J. I. Packer)는 이를 성령 하나님의 투광조명사역(Flood Light ministry)이라고 불렀다.³⁵⁾ 즉 성령께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은 새 언약에 있어서 고유한 그의 역할에 해당된다. Harry Boer는 성령을 사랑하는 (loving) 성령, 생명을 주는 (life-giving) 성령, 그리고 증거하는 (witnessing) 성령으로 묘사하였다. 세 가지로 요약된 성령의 특징은 관심이 성령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로, 생명이 주어지는 대상에게로, 그리고 증거의 내용으로 집중되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성령은 스스로에 대하여 침묵하는 (reticent) 영이시며 표면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self-effacing) 성격을 지니고 계신다.³⁶⁾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는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인식하도록 인도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이제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사람 스스로가 행하는 자발적인 (voluntary) 인식으로 나타난다. 즉 성령의 행위나 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인간의 행위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드러난다.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닫힌 눈을 열고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능력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³⁷⁾ 그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결코 인간이 지닌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간섭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인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의식하는 인간의 행위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주어졌던 행위임과 동시에 또한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결정에 근거한 행위임이 분명하다.³⁸⁾

그렇다면 선교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동기를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전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소명감과 사명 의식을 허락해주시는가? 그리고 선교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내주 사역에 의하여 지속되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의 내주 사역의 핵심이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불러일으키는데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와의 올바른 관계를 진작시키시는 분이시다. 그의 내주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절실히 느끼고 그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하여 준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며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이끌어준다.³⁹⁾ 또한 이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야 마땅하다는 선교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마 28:18-20)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선교에 대한 인식이 짝트고 자리잡게 된다. 즉 이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된다.⁴⁰⁾ 성령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선교에 대한 열정은 단회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주 사역의 특성상 지속적일 수밖에 없다. 성령의 사

35)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65-6.

36) Boer, *Pentecost and Missions*, 133.

37) Taylor, *The Go Between God*, 19.

38) Taylor, *The Go Between God*, 108.

39) 로마 카톨릭의 성화, 즉 거룩한 삶을 논함에 있어서 제자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어진 친숙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디트리히 본회퍼의 공헌으로 비로소 제자도가 성화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Munich: Chr. Kaiser Verlag, 1971), 10. W. H. Velema는 성화의 구체적 형상 (gestalt)은 제자도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이해하였다. Van Genderen &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598-9.



역에 의하여 주어진 참된 선교에 있어서 지속성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 지속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성격상 지속적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그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의 선교 사역 또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둘째, 이 지속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동반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었다. 그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사랑이었다. 선교 현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자신에 대한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 사랑은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는 지속적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 지속성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함 (self-control)으로 드러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스스로를 절제해 나간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스스로를 삼가고 그의 뜻을 순종함이 절제된 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령의 내주 사역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언급되어졌다 (갈 5:22-3).

그렇다면 선교는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는 것인가?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전파가 지닌 특성상 종결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구원 사역에 의하여 시작된 선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심판 사역에 의하여 완성되어질 것이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선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 (J. Moltmann)은 복음 전파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메시아의 시대 (messianic age)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⁴¹⁾ 즉 그의 초림과 재림에 의하여 한정되어지는 메시아의 시대에만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교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모든 선교사역이 종결될 것임을 뜻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내주 사역에 의하여 지속되어지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 24:14)의 의미가 여기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5. 맺는 말

1960년대 이후로 선교신학에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개념이나 레슬리 뉴비진의 선교신학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이해는 선교의 본질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요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교의 본질을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조명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본 논문이 쓰여지게 되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모든 선교신학과 활동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미리 작정하신 선택이라는 은혜의 외적표현에 근거하여 선교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영원하며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선교의 근거에 대한 예정론적 이해는 많은 현실적 장애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선교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 준다. 그렇다면 예정과 선택이 부인되어지는 선교신학은 사실상 선교를 인간의 노력과 성취로만 정의하고 마는 셈이다. 둘째,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모든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하여 그의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는가를 먼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종' (servant)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40) Taylor, *The Go Between God*, 136.

41) Jurgen Moltmann,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Munchen: Chr. Kaiser Verlag, 1975), 246f.



이 종의 사역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위한 사역인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약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고 결코 이방 민족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의 선교사역의 대상은 타 민족들이 포함되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결코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대전제조건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그 근거를 둔 지상에서의 선교사역의 시작에 해당된다. 셋째,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된 선교사역을 크리스찬들이 계속해 나가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적인 행위를 강압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시면서도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신다. 더 나아가서 그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교에 임할 수 있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신다. 또한 그의 사역은 선교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이를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지속성을 지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기절제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선교의 본질에 관한 신학적 이해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예정, 구속, 그리고 내주라는 신학적 교리들은 구원론과 연관되어진 교리들로서 이들의 구체적 적용이 선교의 본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선교와 관련하여 세 가지 결론들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교의 보편주의적 성격과 특수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예정론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요청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특히 이중예정에 대한 교리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여 부인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선교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사역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선교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지지하고 이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앞서 언급되어진 하나님의 선택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된 선교 사역은 그 근거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놓여 있으므로 그의 사역자체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셋째, 성령 하나님의 내주 사역의 실질적 결과는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을 부여함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파함에 있다. 선교에 있어서 지속성은 인간적 인내와 능력의 시험대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 사역에 의하여 주어졌으므로 이해되어야 한다.